최선일의 佛母列傳 시즌2 ⑯ 보해(寶海, 普海) 스님

▶한줄 요약
보해 스님은 17세기 후반 남부 지역을 무대로 활동하며, 스승 희장 스님의 불상 양식을 계승해 18세기 전반 불교조각 양식으로 이어 준 대표적 조각승이다.



17세기 중·후반 영호남 불교조각의 거장 〈巨匠〉

보해 스님은 17세기 중반을 대표하는 조각승 희장(熙藏) 스님의 제자로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17세기 후반 불교조각의 주요 양식 형성에 기여했다. 그는 스승인 희장 스님을 보좌하면서 사찰의 중심 전각과 부속 전각에 다양한 불상을 조성했으며 이러한 조각 활동을 통해 희장 스님이 배출한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서도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했다.

보해 스님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1646년 9월 구례 반야봉 수도암에서 수화승 승일(勝日) 스님과 부화승 희장 스님 등과 함께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을 제작한 것이다. 이때 조성된 불상 가운데 목조아미타여래좌상과 목조대세지보살좌상(도 유형문화유산)은 현재 천은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당시 보해 스님은 조각승 7명 중 마지막에 기록돼 있어 집단 내에서 가장 연배가 낮은 조각승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보해 스님은 1649년 9월 구미 수다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현재 목조대세지보살좌상은 구미 원각사 봉안, 도 유형문화유산) 조성에 희장·천색(天賾)·경옥(敬玉) 스님 등과 함께 참여했다. 이어 희장 스님과 1650년 남원 만행산 금강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현재 진안 금당사 봉안, 도 유형문화유산), 1653년 고흥 불대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약사·아미타여래는 현재 고흥 능가사 봉안), 1654년 경산 반룡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현재 목조미륵보살좌상만 청도 대운암 봉안, 도 문화유산자료) 가운데 본존인 석가여래 제작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보해 스님이 조각승 그룹 내에서 실력을 인정받았음을 보여 준다.

또한 보해 스님은 희장 스님과 1658년 부산 진구 선암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시 유형문화유산), 1661년 부산 범어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보물) 조성 시에는 부화승으로 참여했다. 1664년 6월 수화승 도우 스님과 함께 나주 죽림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과 나한상을 제작하고, 희장 스님과 1665년 진도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보물), 1666년 무안 목우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도 문화유산자료), 진도 쌍계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도 유형문화유산), 1667년 영광 연흥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도 유형문화유산)을 조성했다. 이후 1675년에는 현종(顯宗) 빈전(殯殿) 조성소(造成所)에 화승(畵僧)으로 참여했다.

1679년 보해 스님은 수화승으로서 창원 성흥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도 유형문화유산)을 조성했고, 1680년 고흥 송광암 목조여래좌상(도 유형문화유산)을 제작했다.



창원 성흥사 목조석가여래좌상(1679년). ©불교문화유산연구소



양산 통도사 목조제석천왕좌상(1679년). ©불교문화유산연구소



고흥 송광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1680년).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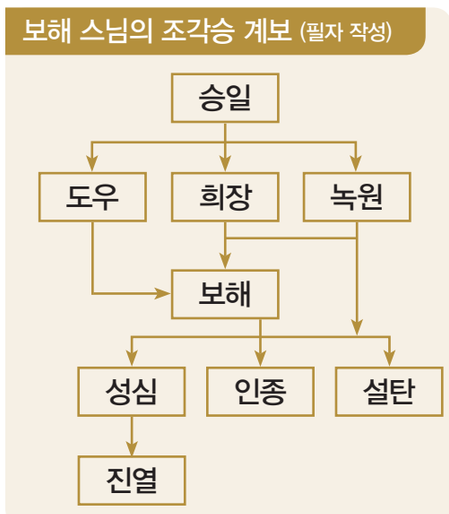
문헌 기록과 현존 유물에 따르면, 보해 스님은 1620년대에 태어나 1630년대에 불상 제작 수련기를 거친 뒤, 1640년대에는 승일 스님이나 희장 스님이 주도한 불상 조성에 보조화승으로 참여했다. 1650년대에는 희장 스님의 주요 불상 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고, 1660년대에는 부화승으로서 주도적인 활동을 전개했으며, 1670년대에는 수화승으로 독립적인 불상 조성을 활발히 이어 갔다.

보해 스님의 활동 지역은 주로 호남과 영남 지역 주요 사찰로, 중심 전각인 극락전, 부속 전각인 영산전에 다양한 불상을 제작했다. 보해 스님이 수화승으로서 제작한 불상은 현재 경남 창원 성흥사, 고흥 송광암 등 두 사찰에서 확인되며, 이외 양산 통도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된 목조제석천왕좌상은 발원문을 통해 1679년 창원 성흥사 영산전 불상과 같은 시기에 같은 조각승들에 의해 조성됐음을 알 수 있다.

보해 스님의 조각승 계보는 승일(勝一·勝日, 이하 활동 시기 1622~1670)→보해(寶海·普海, 1646~1680)→인종(印宗, 1655~1680)·설탄(雪坦, 1673~1680)·성심(性諶·性沈, 1670~1695)→진열(震悅·進悅, 1688~1719)로 이어진다.

희장 스님 계보 잇고 30여 년 활발 활동
1670년대 수화승으로 불상 제작 주도
창원 성흥사 · 고흥 송광암 등에 불상 조성

보해 스님의 조각승 계보 (필자 작성)



보해 스님과 함께 활동한 조각승 가운데 성심 스님이 특히 주목된다. 성심 스님은 1670년, 녹원 스님이 주도한 양주 청련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조성 시 명단 맨 마지막에 기록돼, 이 시기부터 조각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1673년 수화승 자수 스님과 녹원 스님이 만든 합천 해인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 그리고 1679년 보해 스님이 만든 창원 성흥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과 16나한상 제작에 참여했으며, 1695년 수화승으로 전주 백련사 목조나한상(현재 전주 서고사 봉안)을 조성했다. 이로 보아, 성심 스님은 초기에는 녹원 스님을 따르다 이후 보해 스님과 함께 활발히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보해 스님은 1680년 고흥 송광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을 조성하며 자신의 마지막 불상 제작 활동을 마무리했다. 현재 송광암 극락전에는 아미타여래와 대세지보살, 그리고 관세음보살로 구성된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이 봉안돼 있는데 이들 세 불상은 조성 양식의 차이를 보이며 내부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 역시 서로 다른 제작 시기와 조각승을 기록하고 있다. 보해 스님은 이 가운데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을 1680년 5월 설탄 스님과 함께 제작했음이 발원문을 통해 확인된다.

이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높이 66.5㎝의 중소형 불상으로, 인체 비례에 가까운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미소 띤 얼굴은 온화하고 인자한 인상을 주며, 머리에는 동글동글한 나발(螺髮)과 명확하지 않은 육계(肉髻), 이마 위의 작은 반원형의 중간계주(中間髻珠), 정수리에 원통형의 정상계주(頂上髻珠)가 표현돼 있다.

착의법은 대의 안쪽에 부견의를 입고, 그 위에 두꺼운 대의를 걸친 변형편단우견식이다. 오른쪽 어깨에는 부드럽게 반달형의 대의 자락이 흘러내리며, 나머지 자락은 팔꿈치와 복부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간다. 복부에는 부견의 안쪽으로 대의 자락이 접힌 형태가 표현됐으며 하반신을 덮은 복부 중앙에는 상단이 좁고 하단이 넓은 비파채 형태의 대의 자락이 묘사됐다. 이러한 표현은 보해의 스승인 희장 스님이 만든 불상에서 자주 보이는 특징이다. 대의 안쪽에 입은 승각기(僧脚崎)는 수평으로 단순하게 표현됐다.

보해 스님은 수화승으로서 현재까지 두 점의 불상만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온화한 이목구비와 안정적인 신체 비례, 그리고 하반신 대의 자락의 양식적 표현을 통해 스승 희장 스님의 조형 감각을 충실히 계승했다. 그는 이러한 양식적 특징을 제자로 추정되는 성심 스님에게 전수했으며 이는 다시 18세기 전반에 활동한 진열 스님에게까지 이어져 불교조각사의 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사)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장 · csi34@hanmail.net〉



불교 교리와 현대 과학기술의 만남!
인공지능과 석가의 자비
AI시대에 불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불교의 핵심 가르침, 즉 무아, 연기, 자비 등이 AI 시대의 새로운 철학적, 윤리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성찰하였다.
이석주 지음/신국판/408쪽/값 27,000원

한국 현대불교 80년 역사를 한 권에!
한국 현대불교사
광복 직후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 한국 현대불교가 정치, 사회, 문화적 격변 속에서 어떻게 정체성을 확립하고 종교로서의 본령을 회복해 왔는지를 조목조목 짚어낸다.
김경집 지음/신국판/356쪽/값 23,000원

이별의 상처를 치유하는 붓다의 지혜!
사랑은 아프다
온갖 종류의 이별과 상실로 인한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마음챙김 수행법과 불교의 지혜 그리고 따뜻한 조언이 담긴, 실용적이면서 위안을 주는 책이다.
드로 린즐러 지음, 우정석 옮김/국판 변형/208쪽/값 14,8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